



주간통일정세 2014-02(2013.01.06~01.1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승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0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평양시 군중대회, 신년사 과업 관철 다짐(1/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북한이 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다짐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가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가 6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정 간부들이 주석단에 나왔다고 전함.
 - 문경덕 노동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보고(연설)에서 "수도(평양시)의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우는(건설하는) 투쟁의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들고 나가야 한다"라며 평양시를 더 웅장화려하게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취약계층 위한 軍 수산사업소 신설 지시(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의 보급을 전담하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으로 알려진 인민군 제534군부대가 새로 건설한 수산물 냉동시설을 시찰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변지지(빼놓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 하자"며 육아원 등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수산사업소를 조직하라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함.

- **북한, 3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실시(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헌법 제90조에 따라 오는 3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최고인민회의를 실시하자는 상임위원회 결정이 7일 발표됐다고 전함.

- **北통신, 김정은 생일 첫 공식 확인(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밤늦게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평양 체육관에서 로드먼 등 NBA 출신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면서 경기에 앞서 발언한 로드먼이 "원수님(김정은)의 탄생일을 맞으며 조



선에 왔다"고 말했다고 밝혀 북한매체로는 처음으로 김 제1위원장의 생일을 공식확인함.

- **北 과학자들, 2년째 신년사 군중대회서 존재감 과시(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강원도와 남포시에서 전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각각 열렸다고 하며 토론자 가운데 과학자 간부가 포함돼 있다고 전함.
 - 강원도 군중대회에서는 리일섭 도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도농촌경리위원장,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장 등과 결의토론을 했고 박정남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보고자로 나섬.
 - 신문은 보고자 및 토론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소개함.

- **北, 채취공업상도 교체...‘張속칭’ 후속 조치인 듯(1/10,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광물 생산과 수출을 관장하는 내각 채취공업상을 강민철에서 리학철 부상(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첫 금요노동에 동원된 상중앙기관 간부들과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리학철을 채취공업상으로 소개함.

- **北 김정은 "군인생활 향상이 올해 군사사업 중심"(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대 보급을 전담하는 군 후방총국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군인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해 군사사업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라며 김 제1위원장이 "2014년을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변이 나는 해로 만들고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쾌승을 안아오기 위해 군부대를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중앙선거위 구성(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를 조직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결정이 7일 발표됐다고 전함.
 - 중앙선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부위원장장과 김평해 당 비서 겸 간부부(인사담당) 부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홍선옥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서기장이 중앙선거위 서기장을 맡음.
 - 중앙선거위 위원으로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청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영호 전 내각 사무국장, 전용남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 위원장, 현상주 직업총동맹 위원장, 리명길 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로성실 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럽철성 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김완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윤정호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등이 위촉됨.

■ 김정은동향

- 1/7,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 냉동시설 시찰(1.7, 중통·중·평방)
 - 최룡해, 서흥찬, 박정천, 조남진, 황병서, 김병호 동행
- 1/8, 김정은 黨 제1비서, 1.8 리설주와 함께 '로드먼' 등 美 NBA 출신 前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의 농구경기(평양체육관) 관람(1.8, 중통·중·평방)
 - 박봉주·최룡해·강석주 및 駐北 외교·국제기구 대표들 부부동반 관람
- 1/12,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 시찰(1.12, 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김경옥(당 중앙위 제1부부장), 황병서(당 중앙위 부부장)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신년사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1.6 문경덕(평양시당 책임비서/보고)·리일환(평양시당총 비서/사회) 등 참가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1.6,중·평방 녹음실황·중통)
 - 주석단 : 김영남,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곽범기, 문경덕, 로두철,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 김인식 등
 - '노동당이 새로운 100년대에 선군혁명의 위대한 향도자로서 그 위용을 떨칠 수 있는 근본요인은 김정은이 진두에 있기 때문'이라며 '김정은을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으로 칭송(1.6,중통·노동신문)
 - 신년사 '건설부문' 관련 김정은 서한(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서한에 제시된 사상이론을 철저히 구현해 장엄한 투쟁의 해, 변역의 해를 수놓아 가자'고 호소(1.7,중통·노동신문)
 - '김정은 신년사 과업 관철' 위한 평안남도·함경남도·함경북도·나선시 군중대회, 1.8 현지에서 각각 개최(1.8,중통·중·평방)
 -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 1.10 각지 협동벌들에서 첫 '금요노동' 진행(1.10,중통·중방)
 - 현상주(직총 중앙위원장), 김영철(직총 중앙위 부부장), 리학철(채취공업상, 前 강민철이 교체), 김일국(체육성 1부상) 등
 - 강원도 평안북도 당원들, 파철을 수집하여 금속공장들 지원(1.10, 중방)
 - 자강도·함경북도 당원들, 1.5 농촌들에 거름 지원(1.10,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궐, 1.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조직(1.11,중통)
 - 위원장 : 양형섭, 부위원장 : 김평해, 서기장 : 홍선옥, 위원 : 최부일, 김영대, 김영호, 전용남, 현상주, 리명길, 로성실, 럽철성, 김완수, 윤정호

나. 경제

- 北 "농업에 역량 집중해야"...연일 '증산' 강조(1/6,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6일 2면 '올해 총진군의 중요전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다"라며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해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함.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도 식량 증산 의지를 다지는 농업 부문 간부들의 결의를 소개하며 선진 영농기술 도입 등을 통해 식량 생산에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北 경공업·건설 부문 원료 '국산화' 독려(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학습하는 내각 당조직들을 소개하며 "경공업성 일꾼(간부)과 정무원(공무원)들은 경공업공장들에서 원료·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놓고 진지하게 학습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전함.

- **北, 컴퓨터통신 관련법 제정... "경제 정보화" 목표(1/12, 연합뉴스)**
 - 북한이 경제 정보화를 목표로 정보기술(IT) 기반 구축을 위해 컴퓨터 통신 관련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컴퓨터망관리법'과 '전자인증법'을 채택했으며 이 법들은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다그치는 데 이바지한다"고 제정 목적을 명시함.

- **北 노동신문 "온 나라가 농촌 지원사업 적극 나서야"(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온 나라가 농촌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독려함.
 - 신문은 사설에서 '사회주의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인 올해를 알곡 증산으로 빛내자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농촌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고 촉구함.
 - 이어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농촌테제가 밝힌 농촌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특히 "내각과 성, 중앙기관, 연관 단위들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환율-쌀값 정비례' 법칙 20년 만에 깨지나(1/12, 연합뉴스)**
 - 북수의 대북소식통은 12일 "북한 시장에서 작년 12월부터 달러 환율은 상승하는데 쌀값은 반대로 하락하는 희귀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새해 들어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하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시장의 쌀값은 탈곡 완료 전인 지난해 11월 1kg당 5천원 대에서 탈곡이 끝난 그 다음달 1천원 가량 큰 폭으로 내린 이후 지금까지도 4천원 대를 유지하고 있음.

다. 군사

- **北 "자위력만이 평화 담보... 오직 '선군의 길'"(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논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갈 것이다'에서 '강력한 자위적 힘'을 강조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언급하며 자위력만이 자주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선군'을 거듭 강조함.



- **北 '전승기념관'에 3차 핵실험 자료도 전시(1/8, 연합뉴스; 조국)**
 - 연합뉴스가 8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1월호는 전승기념관을 소개한 특집기사에서 작년 2월의 3차 핵실험 관련 자료가 기념관에 전시돼 있다고 전함.
 - 이 월간지에 따르면 전승기념관에는 6·25전쟁뿐 아니라 북한이 정권수립 이후 대외적으로 감행한 모든 군사적 도발 관련 자료가 '총정리'돼 있으며 기념관은 주로 김정일 시대 이후의 군사적 도발 자료를 모아 '선군혁명승리관'(승리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 2월의 3차 핵실험 자료도 있다고 보도함.

- **北, 훈련 중 사망 해군장병 유가족에 식료품 하사(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1면에 '해군용사들의 유가족들이 받아 안은 뜨거운 은정'이라는 기사에서 "해군용사들에게 당의 사랑이 끝없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장렬하게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 790 군부대 용사들의 유가족들이 은정어린 고급 식료품들을 받아 안았다"라고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2013년 10대 최우수 선수 선정...역도선수 5명(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선정한 지난해 10대 최우수 선수에 2013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남자역도의 엄운철·김은국과 여자역도의 려은·화량춘·화조복향 선수가 포함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지난해 제5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 탁구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김정(여)·김혁봉(남)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동아시아인컬과 동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팀 우승에 기여한 허은별과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와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우승한 윤원철(남자 레슬링), 설경(여자 유도) 등도 최우수 선수로 포함됨.

- **北 군중대회 시작끝 모두 '김정은 노래'(1/8, 연합뉴스; 노동신문)**
 - 새해 들어 북한 군중대회에서 '김정일 찬양가'는 사라지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작년 북한 입법활동 초점은 '경제강국 건설'(1/9, 민주조선; 연합뉴스)**
 - 민주조선의 작년 12월 27일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잠업법', '항무감독법', '재생에너지법', '공원유원지관리법' 등을 제정하는 등 북한이 지난해 제개정된 법률은 주로 경제 관련 법률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



합뉴스가 9일 보도함.

- 민주조선은 "새로 채택 및 수정보충된 법들은 모두 경제강국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다 원만히 보장해주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함.

● "부르주아 사상문화 침투 막아라"...北 연일 강조(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라는 장문의 글에서 "부르주아 사상문화는 매우 무서운 독소를 가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수단"이라며 사상교양사업 등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협력과 교류 등 각종 허울 좋은 간판을 들고 보다 적극적이며 공개된 방법으로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유포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켜 다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4명중 1명 흡연...세계평균보다 높아(1/11, 미국의소리(VOA))

- 북한 주민 4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워 흡연율이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미국의학협회저널(JAMA) 최신호에 실린 미국 워싱턴대학교 호주 멜버른대학 공동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북한의 흡연율은 23.4%로, 전 세계 평균인 18.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됨.

2. 대외관계

가. 일반

● 유럽아시아 투자자 7명 내달 북한 방문(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태국, 호주 등의 투자자 7명은 다음달 14일부터 20일까지 평양 등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투자처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스페인 민간단체인 북한스페인 친선협회가 이들의 방북을 주선했으며 북한은 이들에게 희토류를 비롯한 지하자원 개발사업과 한약재 수출사업 등을 투자 유치 희망 분야로 제시함.

● 방북 로드먼 "반복된 평양방문에 살해 위협받아"(1/7, AP통신; 연합뉴스)

- 8일 열릴 친선경기를 위해 평양에 도착한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반복된 방북으로 죽이겠다는 위협도 받았다고 서 경기 수익금은 북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 데니스 로드먼(52)이 배씨의 석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CNN이 9일 보도함.

- 이노키 참의원 13일 또다시 방북(1/9, 교도통신)
 - 프로레슬러 출신인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일본유신회)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고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소식통들은 이노키 의원이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 촉진과 일본 국회의원단의 방북 문제를 논의하려고 북한을 찾는다고 전함.

- 케네스 배, 8개월 만에 가족과 전화통화(1/9,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 1년 넘게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6·한국명 배준호)씨가 최근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씨는 8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이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으며 전화는 같은 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아들을 면담한 직후 이뤄졌다고 밝힘.

- 중국, 내달 충칭서 北 여자축구대표팀 초청 경기(1/9, 중국신문망)
 - 9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5일간 충칭(重慶)에서 열리는 4개국 국제여자축구대회에 북한 대표팀을 초청함.
 - 중국축구협회 관계자는 "오는 5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2014 아시안컵 여자축구대회를 앞두고 중국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북한은 여자축구에서 '아시아 3강'을 형성하고 있어 중국팀에 좋은 상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로드먼, 케네스 배 발언 사과... "술 마시고 인터뷰"(종합)(1/9, 연합뉴스; AP통신)
 - 방북 중인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스타 데니스 로드먼(52)이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자신이 북한에 억류된 데 대해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것을 사과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함.
 - 로드먼은 9일 홍보담당자 질 파일러를 통해 AP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의 행동에 완전한 책임을 느낀다. 매우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었고 술을 마셨다"면서 "케네스 배의 가족에게 먼저 사과하고 싶다"고 밝힘.

- 獨 연구소, 올해 북한 농민에 축산교육(1/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의 농업연구기관인 유기농연구소(FIBL)의 독일 사무소가 올해 북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축산업 교육에 나선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



- 송(RFA)이 10일 보도함.
 - FiBL 독일 사무소 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북한 농업 지도자들에게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RFA에 밝힘.
- 케네스 배 가족 "로드먼 사과 받아들이지만...장난말라"(1/10, 연합뉴스)
 - 북한에 1년여 동안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씨의 가족이 9일(현지시간) 데니스 로드먼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그에게 일침을 가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배씨의 여동생 테리 정씨는 가족을 대표해 성명을 내고 "로드먼이(CNN과의 인터뷰 당시) 격분해 토해낸 실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힘.
- 北 마식령스키장 이용료 하루 25유로(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개장한 강원도 원산 마식령스키장의 '1일 이용권'이 25유로로 정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를 인용해 11일 보도함.
 - 이 여행사가 밝힌 스키장의 하루 이용권은 스키장 입장료와 리프트, 스키장비 이용료를 모두 포함해 25유로로, 한화 3만6천원에 해당되며 반일권은 15유로임.
- 北, 쿠웨이트에 대북투자 요청(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쿠웨이트에 교역 확대와 투자를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쿠웨이트 현지 신문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 쿠웨이트 일간 '알완탄'은 서창식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교역규모가 아직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교역확대를 희망했다고 전함.
- 스위스, 올해 北에 식량수질개선 지원 계획(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스위스 정부가 올해 북한에서 식량 지원, 수질개선, 산림농법 전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은 전날 RFA에 올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 어린이 100만명에게 영양 지원을 하고, 연말까지 평안남북도 등 5개 도(道) 농촌지역에 수도·정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통신, 日 군비증강 비난..."북위협론은 음흉한 구실"(1/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최신 무기 도입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군비 증강 책동과 재침 야망을 가리



려는 음흉하고 비열한 처사"라고 비난함.

- 통신문은 논평을 통해 지난달 일본이 올해 방위비 예산을 늘리면서 북한의 위협을 증액 사유 중 하나로 내건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이 쫓겨는 (지껄이는) 그 누구의 공격설은 해외 침략 야망 실현에 광분하는 일본이 필요로하는 구실로서 유사시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서 제해제공권을 장악해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주장함.

● 北 "아베 '강한 일본' 연두소감은 군국주의자 망발"(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두소감에서 '강한 일본'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군국주의 광신자의 본색을 드러낸 위험천만한 망발"이라고 맹비난함.
- 신문은 '되찾을 것은 패망과 파멸뿐'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아베가 떠벌린 '강한 일본'이라는 것이 부활한 군국주의 일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美 국무부 부대변인 등 '北, 불필요한 군수부문 자금 탕진' 지적에 대해 "미국과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우리(北)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논할 여지조차 없다"며 미국의 '국방예산·反北정책' 비난(1.6,평방)
- 日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13.12.26) 결과는 "비난과 냉대, 국제적 고립뿐"이라며 中·러·美 정부와 세계 주요 언론들 비판 및 일본내 반발 여론 환기(1.6,평방)
- 日 항공자위대에 '항공전술교도단(가칭)'을 설립 계획 관련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무력강화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1.7,평방)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남북관계 개선 위해 南 대북정책 바꿔야"(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함.
- 신문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진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해 북한의 노력에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남조선 당국이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반통일적인 '원칙론'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밝힘.



- **北 통신 "南, 민족의 안전·평화에 옳은 입장 가져야"(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민족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옳은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안전과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는 근원"이라며 우리 정부가 "민족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옳은 입장을 가지고 북남관계 문제를 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정부 소식통 "北 김경희, 위독한 상태로 판단"(1/8, 연합뉴스)**

 - 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우리는 (김경희가) 위독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집안 내력인 심근경색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경희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러시아에서 병을 치료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이 굽어지는 의학적으로 생소한 질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 신문 "南, 통일 바란다면 외세의존정책 버려야"(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한 정부가 외세와 아합해 '동족대결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외세에 의존한다면 언제 가도 북남 사이의 신뢰를 쌓을 수 없고 관계개선을 이룩할 수 없다"고 밝힘.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신뢰'에 대해 운운할 것이 아니라 북남관계에 대해 백해무익한 시대착오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조평통 "南 '안녕하십니까' 유행은 민심의 반영"**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설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다음 날인 10일 최근 유행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표현이 "민심의 반영"이라며 남한 정부가 민심을 탄압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최근 남한의 대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집회 등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반정부 민심의 상징으로 퍼지고 있다'며 "남조선 각 계층의 저주와 분노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北통신 '키 리졸브' 한미연습 계획 비난(1/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한미 군 당국이 2월 말부터 2주일간 키 리졸브 연습을 진행하고 잇따라 독수리 연습을 계획했다며 "미제와 남조선 호전 광들의 광란적인 북침 핵전쟁 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변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



다"고 지적함.

- 통신은 "호전광들은 이번에도 '연례', '방어'의 외피를 씌워 합동군사연습의 공격적이며 호전적 성격을 가려보려 한다"며 "그러나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작전계획에 따라 방대한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침략전쟁 연습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함.

● **北 공대, 南대학에 편지 "안녕하십니까 벽보에 화답"(1/1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최고의 이공계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 학생위원회가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화답해 11일 고려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함.
- 김책공대 학생위는 '남녘의 고려대학교와 전체 학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금 온 남녘땅을 휩쓸며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그대들의 '안녕하십니까' 벽보 게시 열풍에 화답해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정부, 北에 '설 이산가족 상봉' 공식 제의(1/6, 연합뉴스)**

- 정부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고 이에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통신은 정부가 6일 오후 3시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유증근 대한 적십자사 명의 통지문을 강수린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냈으며, 이번 제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함.

● **北, 이산상봉 제의에 무응답...정부 "금강산과 분리"(1/7, 연합뉴스)**

- 북한은 우리 정부가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 지 만 하루가 지난 7일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신은 정부가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 연계를 시도 하더라도 우리는 분리해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고 밝힘.

● **北, 설 이산상봉 거부..."좋은 계절에 만날 수 있어"(종합)(1/9,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9일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은 "남측에서 전쟁연습이 그칠 사이 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것인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상봉을 마음편히 할 수 있겠느냐"며 3월 초께 시작될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설 상봉의 거부 이유로 지목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서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와 장성택 숙청 사건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중래의 대결적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피력함.
- 서기국은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정부, 北 이산상봉 거부에 유감표명... "진정성 보여라"(1/9, 연합뉴스)

-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북한이 거부 방침을 전해온 뒤 발표한 입장을 통해 "북측이 연례적 군사훈련 등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김 대변인은 "북측은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제의에 성의 있게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함.
- 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제안도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북측이 제기하는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함.

■ 기타 (대남)

- '남북間 대결상태 해소 등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지속 강조하고 '외세배격의 우리민족끼리 이념밑에 자주통일운동 전개' 주장(1.6, 중통·노동신문)
- 신년사 '대남 제의'에 대한 '양면전술·위장전술·진성성' 등 발언 관련 '비방 중상을 중지할 데 대한 우리(北)의 제의에 대한 도전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전면 부정하는 도발적 망동'이라며 '南 당국은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1.7, 평방)
- 신년사 '조국통일' 부문 관련 '민족 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사적 과제'라며 '남북, 해외 전체 조선민족은 김정은 영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백두산 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현실로 꽃피워 나가야 한다'고 再次 주장(1.7, 중통·노동신문)
-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비방중상 중단) 및 외세배격의 우리민족끼리 이념 견지' 강조 '김정은 신년사' 연일 주장(1.8, 평방·중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외교부 "6자회담은 북핵해결에 유용한 틀">(1/9, 연합뉴스)
 - 외교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다자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했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한미 간 북한 정세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앞으로의 일"이라고 답하면서, 특히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두고 북한 정세 협의를 강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그는 한미간 별도의 다자협의 채널 구축시 6자 회담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북한 정세협의 강화와 6자회담은 별개"라고 말했음.

나. 미·북 관계

- <美전문가 29% "북한, 아시아동맹에 최대 위협">(1/7, 연합뉴스)
 - 6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 국방부, 연방 의회, 방산업체 등의 국방 분야 전문가 3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시아 동맹들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8.8%가 북한을 지목했음.
 - 중국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47.6%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에 이어 사이버전쟁(12.3%)과 테러(7.9%), 기후변화(3.1%) 등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각각 그 뒤를 이었음.
 -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위협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62.9%가 '비슷하다'고 평가했고, '약해졌다'고 지적한 전문가가 23.0%로 '강해졌다'는 응답 비율(14.1%)을 웃돌았음.
 - 또 '중동의 지정학적 변화와 국내 재정압력을 감안했을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62.0%가 '아니다'(그렇다 38.0%)라고 밝혀 이른바 '아시아 중시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음.
- <美 "北 초청하면 '케네스 배 석방' 특사 파견">(1/8, 연합뉴스)
 - 쟈 스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의 석방을 위해 특사를 현지로 파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자체 소통 통로를 통해 이를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라고 설명했으며, 미국의 자체 소통 통로란 미북 간 외교 경로인 '뉴욕 채널'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됨.
 - 이어 그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재 초청할지는 당연히 북한에 달렸으며 미국은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으나 가부를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사키 대변인은 데니스 로드먼 일행의 이번 방북은 '사적인 일'이어서 미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으며, 북핵 협상 재개 등을 위한 북한 측의 사전 조치도 재차 촉구했음.
- <박한식 美조지아대 교수, 북한 고위급 인사 방미 추진>(1/8,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박한식 조지아대 석좌교수가 이르면 오는 3월 미국으로 북한 고위급 인사를 초청한 '남북미 3자 트랙 2'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며, 박 교수는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를 위해 이달 말에 평양을 다녀오려고 한다"고 밝혔음.
 - 회의는 박 교수가 재직 중인 조지아대에서 열리는 것이 확실시되며, 우리 측 참석자로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과 북한 전문가들이 섭외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를 계기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미가 이뤄진다면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북측 인사에 대한 미국의 입국비자 발급여부도 관심사임.
 - 박 교수는 경제문제 위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트랙 2 회의를 할 때 특히 개성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음.
 - 2011년 조지아대에서 열린 1차 트랙 2에서는 북측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맹경일 아태평화위 실장과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철 참사관 등 9명이 참석, 우리 측에서는 윤여준 전 의원과 백낙청 서울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음.

다. 기타

- <“북한은 9대 핵무장 국가…核안전지수 세계최악”>(1/9, 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물질 안전지수'(Nuclear Materials Security Index)가 30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 이는 고농축우라늄(HEU), 플루토늄 등 핵물질 1kg 이상을 보유한 2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로, 북한은 지수 산정 기준 가운데 국제적 규범, 국내적 관리 및 능력 부문에서 꼴찌였으며 수량 및 시설, 안전 및 통제수단, 위험 환경 등에서도 모두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NTI는 "북한은 핵 안전과 관련한 법, 규제, 정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국제협정에 서명한다면 점수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핵물질 보유량을 늘린다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단독] '한미중 전략대화' 3월 이후로 돌연 연기>(1/10, 한국일보)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한미중 3국간 전략대화'의 개최 시점이 당초 1월에서 3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9일 확인됐음.
 - 정부 관계자는 이날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내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미중 전략대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굳이 한미중 전략대화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비핵화는 우리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회의 시점을 잠시 늦추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한미중 전략대화에 대해 신중한 이유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핵화 이슈를 다루기 때문이며, 최근 북한의 정세변화에 대비한 한미 공조체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따라 정부가 일단 북한의 유동적 상황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 올해 2차 회의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중 전략대화 재개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이 아직 시원치 않다"면서 "결국 중국측의 답변에 따라 회담 개최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한일 '과거사 이견' 대화 해결...전진하는게 중요">(1/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신사 참배 논란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긴밀하게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특히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게 역내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면서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바, 일본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들에 대해 외교적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 하프 부대변인은 이어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에 대해 "그는 정부 대표가 아니다"면서 평가절하 했으며, 이밖에 북한에 대해 "북한은 여러 차례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했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 <한미원자력협정서 원전수출 별도문서화 사실상 합의>(1/7, 연합뉴스)

 - 제9차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시 원전 수출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관련된 협력 사항을 별도 문서로 채택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별도 문서를 채택하는 것은 여러 나라와 원자력 협정을 맺는 미국의 경우 협상 본문은 일종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적용하는 미국의 원자력협정 체결 관행과도 관련이 있음.
 - 한미 양국은 별도 문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안과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술 협력 사항도 기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의 경우 건식 저장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협력이 중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분석됨.
 -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재처리와 농축 문제도 논의했으나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어 이들 사안은 큰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한미 원자력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S.1901)을 발의했음.

- <윤병세 "日, 진정한 행동 필요"...케리 "틈없는 동맹">(1/8,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회견을 통해 "케리 장관과 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음.
 - 이러한 발언은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식적 외교회담을 통해 일본의 행동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됨.
 -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활동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은 '한치의 빛'(inch of daylight)도 들어올 틈 없이 단결돼있다고 말했으며,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하고 원칙적인 대북접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이밖에도 한미 양국은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문제, 방위비 분담, 전자권 전환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음.

- <올해 방위비분담금 9200억원...작년보다 5.8% 증가>(1/12, 연합뉴스)

 - 외교부는 12일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9천 200억 원으로 확정됐고,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고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음.
-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분담금의 90% 내외는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한국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밝혔음.
-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협상 막판 알려진 금액보다는 낮지만 우리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나. 한중 관계

- <중국 관영매체 "한국, 또 해양과학기지 건설 꿈수">(1/5, 연합뉴스)
 - 환구시보는 4일 '한국이 또다시 꿈수(小動作)를 쓴다'는 기사에서 "한국은 계속해 압초 위에 각종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이를 해양주권을 장악하는 '모수'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음.
 - 한국은 '쑤옌자오'(蘇岩礁한국의 이어도)와 '르샹자오'(日向礁한국의 가거초)에 대형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이어 올해 '서해 해양과학기지' 건설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라오닝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류차오주임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러한 꿈수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며 국제법에도, 이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중국 정부는 최근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한중간 논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위치한 이어도 문제는 해양경계선 확정 담판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 <중국 "박근혜 대통령 한중관계 발언 높이 평가">(1/7,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 한중 관계가 한층 밀접하게 발전하는 것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수호하는 데에도 적극적 공헌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우리는 공동노력을 통해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통인식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하면서 앞을 향해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韓中 FTA 9차 협상 종료…"양허협상 큰 진전 없어">(1/10, 연합뉴스)
 - 중국 시안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일 종료됐으며,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을 처음으로 교환했음.
 - 우리 측은 비교 우위에 있는 석유화학철강기계정보통신(IT)과 중국 내 수시장을 위한 전략품목인 화장품고급가잔의료기기 등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중국 측을 압박했고, 반대로 중국 측은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품목을 대거 초민감품목에 넣어 빗장을 걸었다고 전해짐.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 측의 자국 양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대외비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측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다만 FTA 협정문의 틀을 짜는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은 10차 협상을 3월경 한국에서 열기로 했음.

다. 한일 관계

- <日 관방장관 "아베 내각, 역대 정권 역사인식 계승">(1/7,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리아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언행을 지적한 데 대해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한일 관계에 대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반성한 1995년 무리아마 담화와 관련, 작년 4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일본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에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과 같은 입장"이라고 답변을 수정한 바 있음.
- <日 정부대변인 "한국에 끈질기게 일본 생각 설명">(1/8,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끈질기게 일본의 생각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과거사 이슈가 동북아에서 화해와 협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한 것에 관해 이렇게 언급했음.
 - 스가 장관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 <“日 '독도는 고유영토' 중고 교과서 지침에 명기”>(1/11,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음.
 - 일본 문부과학성은 근시일 내에 해설서를 개정해 2016학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며, 신문은 이를 '국제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일본인이 영토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를 외국에 전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뚜렷하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라. 마중 관계

- <“美 전함, 남중국해 순찰활동…중국 견제”>(대만 매체)<(1/10, 연합뉴스)
 - 자유시보는 영국 군사전문지를 인용해 미국이 싱가포르에 배치한 신형 연안전투함(LCS) USS 프리덤호가 지난달 남중국해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고위 관계자는 프리덤호가 남중국해 주변 '미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구역'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 대만 언론은 이런 움직임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중국이 지난 1일 발효한 새 어업관리 규정에서 외국 어선과 조사선 등의 남중국해 진입 시 사전 허가를 요구하면서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음.
 - 이에 앞서 지난달 5일에도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순양함 카우펜스호가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 호위 군함 한 척과 근접해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마. 마일 관계

- <“美 국방, 日방위상에 주변국 관계개선 당부”>(교도)<(1/5,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4일(현지시간)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주변국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헤이글 장관의 발언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참배에 대해 미국 정부가 대변인 성명 등으로 실망감을 표시했지만, 각료가 직접 반응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일본 정부는 "두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부전의 맹세를 표시한 것이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본의"라는 뜻을 회담에서 강조했다고 밝혔음.
 - 교도통신은 헤이글 장관이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내에서 이동하



는 데 필요한 매립 승인이 난 것에 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日, 아베 동생 미국 급파...야스쿠니 수습 시도>(1/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난달 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아베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 외무성 부대신이 13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9일 발표했다.
 - 기시 부대신은 워싱턴과 보스턴을 잇달아 방문,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며, 교도통신은 기시 부대신이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하고, 이해를 얻고자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일본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미국이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자 총리 관저와 외무성, 국회 등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서는 모습임.

바. 중일 관계

- <中-日, 새해 초 아프리카에서 '외교 전쟁'>(1/8, 연합뉴스)
 - 8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아프리카 순방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일 (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일부 역외 국가가 아프리카에서 '한 파(派)'를 끌어들이며 다른 한파를 공격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왕 부장은 이어 "이른바 정치적 의도에서 아프리카를 원조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태도로 진정으로 아프리카인의 민심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사회과학원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의 장홍 부소장은 왕 부장의 언급은 아베 총리의 아프리카 방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장 부소장은 일본이 올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크게 늘렸고 지난해 아베 총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했던 행동들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은 확실히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 <中, 아베 총리 '정상대화 제안' 또 거부>(1/6,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가 중국, 한국 지도자와 만나 신사를 참배한 '진의'를 설명하고 싶다고 밝힌 것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중국은 아베 총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는 양면적 방법으로 중일 관계를 훼손해 왔으며, 더 나아가 신사참배를 강행하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엄중히 파괴한 것은 스스로 중국 지도자와의 대화의 문을 닫은 것임을 강조했다.



- 화 대변인은 이어 "만약 아베 총리가 진정으로 이웃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마땅히 일본군국주의의 대외침략과 식민지역사를 분명하고 절실하고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성실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외주재 中 대사들 대일비난 가세...'확전' 조짐>(1/6, 연합뉴스)
 - 중국 외교 당국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연일 강도 높게 비난하는 가운데 외국에 주재하는 중국대사들까지 대일공세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음.
 - 영국 주재 류샤오밍 중국대사, 장쑤성이 주캐나다 중국대사는 최근 현지언론을 통해 아베 총리를 비난했으며, 이에 앞서 추이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 역시 지난 3일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을 비판했음.
 - 주재국 주요언론과의 적극적 접촉을 통한 외국주재 중국대사들의 동시다발적인 대일공세는 주로 해당국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중국 "日 군국주의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악마" 맹공>(1/7,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하야시 게이이치 주영국 일본 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이 아시아의 볼드모트가 되려 한다'는 제목의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중국의 군비지출을 비난한데 대해 "무지하고 무리하며 안하무인"이라고 비난했음.
 - 중국 외교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중국의 1일당 군비는 일본의 5분의 1이다. 도대체 누가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아시아와 세계 인민들에게 있어 일본 군국주의 침략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악마"라고 비난했음.
 - 이어 일본이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일본은 이미 실제행동으로 침략역사와 A급 전범을 위해 재판을 뒤집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말을 하면 할수록 검어질 뿐이며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 <日방공구역에 中항공기 근접, 자위대 긴급발진>(1/7,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7일 센카쿠열도 '영공'에서 약 140km 떨어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국가해양국의 Y12 프로펠러기 1대가 근접한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Y12가 접근하자 오키나와 나하기지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했으며 영공 침범은 발생하지 않았음.
 - 작년 11월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후 일본 방위성이 중국 항공기에 맞서 긴급발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中, 중일 민간교류 파행은 사실상 '보복조치' 시인>(1/9,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중국이 대표단 3개의 1월 방일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신사참배에 대한 중국의 대항조치인가'라는 질문에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했다고 거론, "그런 잘못이 양국 간 교류왕래와 협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사실상 '보복조치'라는 점을 인정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계속 양국 간 마지노선에 도전하며 중일 간 4개의 정치적 원칙과 정신을 엄중하게 위배하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파괴했다"며 "일본은 반드시 이 때문에 초래될 정치적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화 대변인은 이런 입장은 중국외교부가 이미 밝힌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지도자가 계속 잘못된 행동에 집착하며 도발과 대항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앞에는 오직 막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사. 기타

- <“中, 쟂-15 후속 신형 전투기 개발”>(1/5, 연합뉴스)
 - 대만 중앙통신(CNA)은 5일, 중국이 첫 항공모함인 라오닝호 함재기로 낙점된 쟂-15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전투기 쟂-16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이 전투기는 중국 허베이 공군기지에서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쟂-16은 러시아제 수호이-35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쟂-16이 12t의 폭탄 또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통신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일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신형 무기류 개발 및 군사훈련 소식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했음.
- <아베, 집단자위권 의지 표명…"논의 심화시켜야">(1/6,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올해 첫 공식 활동으로 이세신궁에 참배한 뒤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음.
 - 이어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과 개헌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고 부연했으며,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해나가면 반드시 이해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밝혔으며, 자신이 야스쿠니에 참배한 '진의'를 "중국, 한국에 성의를 갖고 설명하고 싶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음.
 - 아울러 "두 번 다시 전쟁 아래 힘들어하는 일이 없는 시대를 만들지 않



으면 안 된다"고 언급한 뒤 "아시아와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세계 전체의 평화실현을 꿈꾸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며 "새해를 맞아 그런 결의를 새롭게 했다"고 부연했음.

● <"아베, 야스쿠니 대안 추도시설에 부정적">(日언론)>(1/7, 연합뉴스)

-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석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할 별도 추도시설의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음.
- 최근 한국, 중국 등이 A급 전범 합사를 이유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에 반발하자 별도의 추도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음.
- 그러나 아베 총리는 6일 밤 배우 쓰가와 마사히코 씨 등과의 회식에서 별도 추도시설 건립 방안에 대해 "다른 시설을 건설하면 전몰자 가족은 아마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동석한 전 후지 TV 아나운서 쓰유키 시게루씨가 기자들에게 전했다고 함.
-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에서 만나자"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어간 전몰자의 영혼은 야스쿠니 신사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쓰유키씨는 덧붙였다.
- 태평양 전쟁 당시 '가미카제'로 불리는 자폭 특공대원 등이 '야스쿠니에서 만나자'고 외치고 출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日 NSC사무국 발족..."전략적으로 국토 수호">(1/7,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7일 정식 발족했음.
-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국 초대 국장에 그간 내각관방참모로 활동해 온 야치 쇼타로씨를 임명했으며, 발족식에 참가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일본은 전략적으로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방위안보 정책에 관한 의지를 피력했음.
- 아베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정한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주요 안보 정책 과제로 꼽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장국이 이 과정에서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인도 '反中 만리장성' 쌓는다">(中언론)>(1/8, 연합뉴스)

- 중국 환구시보는 일본이 인도와 군사적으로 중국을 반대하는 '창청(長城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A.K. 안토니 인도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이 앞으로 해군 합동 훈련을 비롯해 육해공군 군사협력을 다양하게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분석했음.
-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해 오는 26일 인도 국경절 열병식에 주빈으로 참석하는 것을 일본과 인도 양국 언론이 강조하고 있음



을 주목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中, 남중국해 새 규정 발효…주변국 일제 반발”>(1/1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는 중국이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자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지난 1일자로 발효시켰다고 보도했음.
 -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회는 작년 11월 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는 지난 1일자로 공식 발효됐으나 대외에 공표되지는 않았음.
 - 그러나 중국이 이 조례를 발효시키자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음.
 - 쟌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도발적이고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히면서 "중국은 이번 주장을 펼치면서 국제법에 따른 어떤 설명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美핵잠수함 태평양 집중배치…북중 대응”>(1/12, 연합뉴스)
 -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군사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핵잠수함 정찰 활동의 60% 이상을 한반도 인근 해역을 비롯한 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전용으로 분류된 12척의 잠수함 가운데 항상 최소 8~9척은 작전 해역에 배치돼 있는 상태이고, 이들 가운데 4~5척은 전략전 계획에 따라 특정 목표물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해역에서 '초비상'(hard alert)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북한 등의 핵 도발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인근 해역에 배치된 잠수함에서 첨단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해 즉각 반격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미국은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등에 따라 전반적인 핵전력과 잠수함 정찰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매체, 南 비판하러 시위소식 전하지만 역효과"(1.6, 데일리NK)

- 북한은 6일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새해에 들어와서도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파업현황을 상세히 소개, 이를 "민심의 뚜렷한 반영"이라고 주장
-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치솟는 울분, 더욱 고조되는 총파업투쟁'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고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2일 남조선 당국은 무장경찰을 내몰아 민주노총본부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소동을 벌여 최루액까지 쏘아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해갔다"고며 이같이 비난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의 야만적인 탄압과 기만술책에도 불구하고 강화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강경한 반정부투쟁은 현 정권을 기어이 퇴진시키려는 민심의 뚜렷한 반영"이라고 강변했다.
- 북한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는 남한 내 각계각층의 파업 소식 등을 전해 대남 적대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오히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리는 셈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 美 "북한이 초청하면 '케네스 배 석방' 특사 파견"(1.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석방을 위해 특사를 현지로 파견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초점은 배 씨의 석방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북한이 다시 초청하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
- 그러면서 "우리 자체 소통 통로를 통해 이를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라고 지적

● 미 의학저널 '북한인 4명 중 1명 흡연'(1.9, 미국의 소리)

- 미국 워싱턴대학과 호주 멜버른대학 공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흡연자 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3.4%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 18.7%를 크게 웃도는 수치
- 북한은 특히 남성 흡연자가 많아, 2012년 현재 남성 흡연율이 45.8%에 달해 세계 평균 31.1% 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북한 내 여성 흡연자는 전체 인구의 2.6%에 불과



-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87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에서 2012년까지 15살 이상 흡연 인구의 수와 흡연량 등을 추정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자료와 각국의 보건통계, 민간 연구 등을 분석해 이루어짐.
- 전체 흡연자 수는 2012년 현재 4백63만7천 명으로 1980년의 2백51만2천 명 보다 2배가량 증가했으며, 흡연자 한 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담배의 양은 2012년 14.9개비로 세계평균 17.7개비보다 적음.

● "북한, 12년 연속 기독교 박해 세계 1위"(1.10, 연합뉴스)

- 미국의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월드워치 리스트(WWL)'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평가된 50개 국가 가운데 북한이 1위를 기록하면서 12년 연속 선정
- 기독교 박해 정도를 점수로 환산할 때 북한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기록해 지난해(87점)보다 더 높아졌으며, 이는 2위 박해국인 소말리아(80점)보다 무려 10점이나 높은 것
- 보고서는 "전 세계 어디에도 북한처럼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심하게 박해받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들은 부패한 관료, 나쁜 정책, 자연재해, 질병, 기아 등과 싸워야 한다"고 지적
- 특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신과 같이 숭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면서 "기독교인들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

● 北, 지방 차별 노골화..."평양은 주고 지방은 쌀 未공급"(1.10,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지난해 수확된 쌀을 평양 노동자들에게 배급했지만 지방 노동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배급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이 올해부터 '정상 배급'을 예고했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자 지방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달
- 평양 소식통은 "지난 3, 4일 이틀에 걸쳐 보름치의 식량이 배급됐다"면서 '정상 배급'의 실시여부에 대해 의심했던 주민들이 실제로 배급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으며, 평양 쌀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언급
- 반면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는 아직까지 배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양강도 소식통은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받지 못했지만 군인, 국가안전보위부, 보안원 가족들에게는 비교적 풍부한 배급이 이뤄졌다고 설명

● 케네스 배 석방 탄원서명 15만 명 육박(1.11, 미국의 소리)

-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의 구명을 탄원하는 서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 연말 10만 명을 넘어선 뒤 2주 만에 또 5만 명이 증가



-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오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간담회에 배석했던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북한인권법 문제를 그대로 수용할지를 논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형제 폐지에서처럼 남북의 공통 주제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
- 김 대표의 13일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에 이를 담을지와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언급

3. 탈북자

● "북한 가족 구출하려고..." 사기혐의 탈북자 집유(1.7, 뉴스1)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캐피탈사를 통해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탈북자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이 판사는 "대출금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새터민인 피고인이 우리 국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 A씨는 2012년 8월 7일 캐피탈사를 통해 5800만원을 대출받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뒤 차량을 타인에게 팔아 돈을 챙기고 대출금은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
- A씨는 법정에서 "(북한에 있는) 외조부와 처제 등을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

●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피의자, 수사관들 고발 (1.7, 뉴스엔뉴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의자 유우성 씨가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관들을 증거은닉 및 조작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
- 유 씨와 유 씨의 법률대리인인 민변은 7일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검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 조작과 검찰의 출입국 자료 조작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 날조죄 혐의로 '성명미상'의 수사관들을 고발
- 민변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내에서의 조사는 본래 위장탈북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만 본건의 경우 유 씨의 여동생은 본인 및 오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약 6개월 동안 독방에서 감금생활을 해야 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변호인의 접견이 불허됐으며, 진술 당시 회유와 가혹 행위 등으로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



- 민변은 또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로 제출한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은 검증결과 모두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로 밝혀졌으며, 또한 해당 사진임 담겨있는 노트북 파일에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사진들이 있었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진을 은닉했다고 주장

● 중국내 탈북자 최대 15만 명(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을 빠져나와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최대 15만 명 정도
- 대만의 인터넷신문인 원트 차이나 타임스(Want China Times)는 지난 7일 중국 광조우의 시사주간지 '남부주간'을 인용해, 북한에서 대기근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의 수가 10만 명에서 많게는 15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
- 또한 지난 수년 동안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주민의 탈북을 돕기 위한 은밀한 지하사업이 발달했으며, 2013년 9월까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간 탈북자는 모두 2만5649명으로 집계
-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면 중국말과 한국말을 사용하는 조선족 80만여 명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된다고 설명
- 불법으로 중국에 들어온 북한 주민 가운데 일부는 식량과 옷, 그리고 현금을 친척들로부터 얻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중국에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 또한 중국내 전체 탈북자 가운데 10% 정도는 브로커, 즉 중개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언급

4. 이산가족

● 차대통령 "통일은 대박...설맞아 이산가족 상봉해야"(1.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맞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
-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당부

● 정부, 北에 '설 이산가족 상봉' 공식 제의(1.6, 연합뉴스)

- 정부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고 이에 앞서 이



-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
- 정부는 6일 오후 3시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유증근 대한적십자사 명의 통지문을 강수린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송부
 - 이번 제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데 따른 것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측이 우리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로 첫 걸음을 잘 떼어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김 대변인은 "작년 9월 합의됐다가 연기된 행사를 재개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건강 문제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새로운 분들로) 교체할 것인지는 실무 접촉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분리 입장도 재확인

● 김한길 "통일기반구축 환영...이산상봉 재개 기대"(1.8, 연합뉴스)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올해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마련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일들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특히 "설을 맞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

● 北, 설 이산상봉 거부... "좋은 계절에 만날 수 있어"(1.9, 연합뉴스)

- 북한은 9일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하는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했으며,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며 북측에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
-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지문이 언급한 '우리의 제안'은 북한이 지난해 7월 이산가족 상봉뿐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열자고 제안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임.
- 통지문은 "설은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고려된다"고 언급, 설 무렵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는 것이 날씨가 추울뿐더러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는 의사를 표명
- 북한은 오는 3월 남한에서 진행될 한미 합동군사연습도 거론하며



"남측에서 전쟁연습이 그칠 사이 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도 이제 (남측이) 그것을 다시 하자고 하는 데 대해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덧붙임.

● **정부, 北 이산상봉 거부에 유감표명... "진정성 보여라" (1.9, 연합뉴스)**

- 정부는 9일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거부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시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
-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북측이 연례적 군사훈련 등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 또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측은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고 봄에 다시 추진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임.

● **여야 이산가족 상봉 불발에 '유감'... 상봉 재개 촉구 (1.9, 연합뉴스)**

- 여야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상봉 재개 촉구
-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최단 시일 안에 상봉이 이뤄지도록 북한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밝힘.
-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산가족들의 애틋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도, 북한도 노력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에는 정부와 여야의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정부 "北 이산상봉 성의 보여야... 금강산도 논의 가능" (1.10, 연합뉴스)**

- 북한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정부는 북한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말로만 인도주의 사안을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제의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의 새 계기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거듭 강조



-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문제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분리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북 간 일정이 협의되고 금강산 관광이 구체적으로 (북으로부터) 제의되면 이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전병헌 "이산상봉 위해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제안"(1.10, 연합뉴스)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거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인 '한반도 프라이카우프'제를 제안한다"고 언급
 - 전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비료 등 현물을 제안과 국군 포로를 비롯한 7만여 이산가족 전원을 단기간 내에 상봉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
 - 북한의 상봉 제안을 거절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충분한 사전 정지와 준비 없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산가족에게 더 큰 실망과 절망을 준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

5. 남북자

- 특이 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IFRC 올 대북 예산15% 감소(1.6,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IFRC)는 '2014 대북사업 계획'을 내고 올해 대북 사업 예산으로 미화 560만 달러를 책정해 지난해 대북사업 예산 664만 달러와 비교해 104만 달러, 즉 15% 가량 감소
 - 올해 대북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관리가 196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건에 189만 달러, 식수위생에 95만 달러 순으로 배정
 - 국제적십자사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



반했는데, 재난 대응과 관련해 지난해 국제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은 북한주민의 90% 이상이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시 72시간만에 구호나 지원을 받았으며, 적십자사 자원봉사자의 90%가 두 차례 연수를 받고 비상 대응과 관련한 기술을 배웠다고 설명

-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북한 내 수해 지역에서는 산모 사망률(maternal mortality rate)이 50% 가량 감소했으나, 북한 보건 체계의 열악함으로 인해 주민 중 설사병, 급성 호흡 장애(MMR), 위염 등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인구가 증가 추세
- 국제적십자사는 올해도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의 주민 825만 명을 대상으로 보건과 위생, 재난관리 등의 활동을 펴겠다고 언급

● 지난해 WFP 북한 반입 식량 17년 만에 최저(1.8, 미국의 소리)

- 세계식량계획(WFP)가 2013년에 국제사회로부터 기부 받은 자금으로 북한에 들여간 식량은 총 3만5천t으로, 나나 스카우 세계식량계획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런 규모는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
-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은 지난 1995년 5천140t으로 시작해 2001년에 사상 최대인 93만여t을 기록한 뒤 2011년에는 10만여t, 2012년에는 8만4천여 t을 기록
- 스카우 대변인은 "2014년에도 자금 조달 전망이 나쁘다"며 북한 내 식량이 다 떨어져 "대부분의 영양과자 공장이 2월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언급
- 디르크 슈테겐 WFP 평양사무소장은 WFP가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식량 중 1월에는 분유, 2월에는 설탕과 콩이 바닥나 식량이 다 떨어지면 3월에는 7개의 영양과자 공장을 모두 폐쇄해야 할 상황이라며, 영양과자 생산을 중단하면 유치원과 인민학교에 다니는 60만에서 70만 명의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
- 슈테겐 소장은 식량을 구매해서 북한까지 들여오는 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며, 당장 추가 기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독 NGO, 북에 고효율 축산 관리 전수(1.9,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연구기관인 유기농연구소(FiBL: 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의 독일 지국은 북한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 농법 전수 지원사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
- 유기농연구소는 유럽연합의 지원금으로 협동연구농장을 세워 북한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고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 작업을 북한 농업과학원 산하의 유기조사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을 유럽연합에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면서 기존 사업은 올해 6월까지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농민 교육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설명

- 유기농연구소의 새로운 지원 사업은 북한의 농민 지도자들에게 자연자원관리와 축업경영법 그리고 유기농 생산물의 표준화 등을 교육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바움가르트 연구원은 소개

● 스위스, 올 북한서 식량·수질개선 지원(1.10,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정부는 올해 북한에서 유엔을 통한 식량지원과 산림농법전수 그리고 수질 개선을 위한 설비 등 세 분야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은 새해의 대북 지원 계획을 소개하며 올해 말까지 진행할 식수지원과 수질개선 사업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언급
- 외무부의 손자 이셀라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미화 약 224만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의 농촌 지역에 수도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지원 지역을 선정했고 올해 12월까지 이들 지역에 수도 시설과 정수기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
-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산간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산간농업안내책자'를 지난해 북한학자들과 세계산간농업센터(World Agroforestry Center)와 공동으로 영어와 한글본으로 발간
- 이셀라 대변인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분말우유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북한의 어린이 100만 명에 영양지원을 한다고 소개

8. 북한동향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5호(12.5)】 우리 정부 및 새누리당에서의 對北발언(대남 반정부 선전·선동 강화 및 내정간섭) 관련 '중북소동을 정당화하고 반정부 투쟁기운을 거세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남녘동포들의 의로운 투쟁에 계속 지지 성운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12..5, 중통·중방)
- 【北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12.6)】 우리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7종) 수정명령 관련 '새 세대들에게 反공화국 적대의식을 주입시키고 파쇼독재 역사를 합리화하려는 망동으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교육 사업에 대한 모독이고 유린'이라고 비난(12.6, 중통·중방)
 - 역사자료를 부정하고 진리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단까지 마녀사냥으로 짓밟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반공화국 적대감을 주입하여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것임.

- 우리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수정 지시에 대해 '새 세대들에게 왜곡 날조된 역사를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재차 비난과 '반민족적 역사왜곡 중단' 주장(12.7, 평방/비열하고 파렴치한 역사날조 행위)
- 우리 정부의 '對日 저자세 외교' 주장 및 대통령 시정연설 및 '국회 파행 등 정치권 문제' 거론 비방(12.7, 평방/일본의 조소에 병어리 시늉을 하는 속내·극도의 통치위기 심화되는 정치적 혼란)
- 우리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7종) 수정명령 관련 '새 세대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고 사회를 더욱 파쇼화, 반동화하려는 범죄적 망동'이라며 "동족대결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속 비난(12.9, 중통·중방·노동신문/대결의식을 고취하는 교과서 수정 놀음)
-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의 '北, 對南 反정부투쟁 선동 등은 내정간섭' 지적에 대해 '민주화 실현을 위해 떨쳐나선 南 인민들에 대한 모독, 北에 대한 도발'이라며 '對南 선동 공세 지속' 표명(12.10, 중통·노동신문/파쇼광들의 괴이한 내정간섭 타령)
- 南 당국의 '중북소동은 진보민주세력을 분열 와해시키고 파쇼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며, 유신 독재를 완전히 부활시키자는 것'이라고 지속 주장(12.10, 중통·노동신문/중북 소동은 파멸을 모면하기 위한 폭거)
- 대통령의 감사원장·보건복지부장관·검찰총장 임명 관련 "민심에 역행하는 극악한 정치적 폭거" 등으로 지속 시비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10, 평방/민심에 역행하는 장관 임명 놀음)
- 우리 현 정권을 '불법 비법으로 권력을 강탈한 쿠데타정권'이라며 '인민들의 심판대상, 타도 과녁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 및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지속 왜곡 비난(12..11, 중통·노동신문/독재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